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무주군 시무식... 법고창신(法古創新) 강조

무주군은 2일 무주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5백 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현충탑 참배와 기념식,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플래시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2017년 한 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

는 일에 주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근본을 잃지 않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군민의 삶을 우선 해야러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했던 행정절차와 일처리부터 개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무주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무주’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태권도가 지역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군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절실함으로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황 군수는 “올 한 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무주 경제의 중심에 있는 관광과 농업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7차 산업화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7차 산업화는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는 무주만의 전략으로 따뜻한 공동체 정감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가 가진 자연과 마을 자원에 문화적 활동을 더하는 노력에 매진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관로개척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인적자원 육성, 마을 경쟁력을 키우는 등의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올 한 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토대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하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보다 구체화시키자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2일 무주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황정수 군수 등 참석자들은 무주역을 돌본 뒤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청정환경·소득증대·관광개발” 기반 다지자

이향로 진안군수, 군정 주요업무계획 발표

지난해 진안군은 “청정환경, 소득증대, 관광개발” 등 군정 3대 핵심과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진안홍삼축제는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진안군 역사 이래 최대 인파인 15만명이 방문하여 7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신규 국가 예산 1,258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인 용담호 하수시설 확충과 농촌개발사업 등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경, 농업,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경쟁대전 국무총리상과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군정성과를 빛냈으며, 27개 공모에서 32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군정목표는 민선6기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의 100년을 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진안군의 향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군의 미래 자원인 청정환경 보전, 살 맛 나는 부자농촌 육성,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표관광지 조성, 활기찬 균형개발과 안전한 지역 만들기, 신뢰와 소통의 군민공감 행정 구현 등이 있다. 이향로 군수는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진안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군정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여명을 여는 한 해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AI 확산 방지 총력전

거점소독시설 4곳 설치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완주군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4개소(이서 애동, 완주IC, 고산기축시장, 화산완주자연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및 이

동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병원성 AI 국가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적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행반과 각 이동통제초소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연말연시 유행도 반

납하고 AI 확산을 막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기축방역 통제초소 차량소독 강화, 방역초소 근무자 교육 내실화 및 자체 점검반 운영, 대군민 방역 적극 홍보 등을 통해 AI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판정과 관련, AI 인체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일부
063-430-2951

“군민이 기대하는 부군수 되겠다”

유근주 진안부군수 취임



“진안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군민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 신임 유근주(56·전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사진) 부군수가 2일 취임일성으로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유 부군수는 “지금 농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도 함께 온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행정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군민이 기대하는 부군수가 되기 위해 열심 노력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업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본연의 업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양보와 나눔으로 주위 챙길 터”

이태현 무주부군수 취임



“좋은 것은 양보하고 귀한 것은 나눠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위를 챙겨나가겠다” 2일 무주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태현(57·사진) 부군수의 일성이다. 이태현 부군수는 “무주가 따뜻한 경쟁체제를 갖춰가도록 힘을 보태고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자세로 지역의 현안들을 챙겨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30년 간 재무와 지적, 정보, 총무 등에서 일하며 쌓은 공직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을 인정받고 배려가 넘치는 직장분위기는 무주군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이 제 역량을 발휘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

도선수권대회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있는 만큼 올해를 무주를 일구는 약동의 해로 삼아 한 단계를 올려 보자”고 강조했다. 1987년 정읍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태현 무주군 부군수는 전북 완주군 용진읍 태생이며 그동안 부안군 변산면장과 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토지정보팀장, 혁신도시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북도 정보과총괄과장과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업무 능력을 배태함으로써 인정받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복한 장수 만드는데 최선을”

한영희 장수부군수 취임



장수군 부군수에 한영희(57·사진)씨가 부군수로 취임했다. 한 부군수는 시무식 취임사에서 부군수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인사를 한 후 성과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명나는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군수는 우수공무원 표창(대통령 표창)의 국가 산업발 전진기여유 공 장관급기관 표창, 정보화이용 능력평가우수시장, 군수표창(구청장, 전주시장)등을 받은 탁월한 행정가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별블로그

완주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완주군이 출산장려 정책 및 민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2일 완주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부모와 아이 자신에게는 기쁨과 추억의 산물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종합민원관에서 취합, 매월 2차례 일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가정에 전달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장계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장수군 장계시장에 비가림 아케이드(Arcade)가 2017년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편리한 장보기가 예상된다. 이번 비가림 아케이드 공사는 4억 원을 들여 495㎡의 면적으로 2017년 1월경에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할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서 5월에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김태용 상인회장은 “비가림 시설이 확정돼 1년 내내 비나 눈보라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장계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계시장은 2003년에 21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 현대화와 2012년에 노점구역 비가림 3천만 원으로 시장재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계시장은 점포 39명, 노점 43명의 상인이 운영하며, 새벽 우시장이 열리는 5일장(3일, 8일)으로 1일 평균 1,6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2017 시무식 가져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은 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 앞서 무주를 한풍투에 소재한 춘혼탑에서 참배행사를 갖고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각오를 다졌다. 나 서장은 “지난해 안전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공감 치안활동을 펼쳐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해에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속에서 주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희망찬 출발 다짐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2일 오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경찰서장 및 각 과장, 계장, 파출소장 등이 장수를 남산에 위치한 춘혼탑을 방문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해 새해 첫 참배를 한 후 진행됐다. 전준호 서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를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처럼 장수경찰과 가정에서 모든 일에 소인 성취하길 바라며,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군을 위해 전 직원들 모두가 노력해 2017년에도 신뢰받는 믿음직한 장수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